

## 경제포커스

### ■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

최재헌(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

skhong@sdi.re.kr

## I.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의 흐름

21세기는 국가를 초월한 도시간의 경쟁이 두드러질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화와 지방분권화의 결과이며, 지방과 도시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

서울은 20세기 후반을 지나며 국제도시로 성장하였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도시로 도약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도시와 세계도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흔히 국제도시와 세계도시는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이 다르듯 국제도시와 세계도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파리-소르본대학교 지리, 국토 및 지역개발학 박사
-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강 역사문화 유산 회복 : 기초연구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구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서울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등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류들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들이 형성되어 외국인의 왕래 또는 거주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일컬어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라 한다. 이에 비해,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화의 의미보다 다문화가 강조된 개념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외국 인적자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도시(Global City)란 이해와 포용의 다문화가 기반이 된 도시를 말하며, 이것이 서울이 지향해야 할 세계중심도시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표 1> 국제도시와 세계도시의 특성비교

구분	국제도시	세계도시
시기	19세기 ~ 20세기 말	21세기 이후
문화	경제 중심의 획일 문화 (집중 · 주도성)	사람 중심의 다문화 (분산 · 포용성)
활동주체	다국적 기업 · 국제기구	다국적 시민 · 초국적기업 · NGO
가치관	물리적 교류 네트워크 및 인프라 형성	다문화 이해 · 포용 공간 및 가치 형성

그의 예로서 런던과 파리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다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세계도시라 하겠다. 런던의 경우 시 전체 인구의 약 25%, 파리의 경우 시 전체 인구의 약 14.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반대로 도쿄는 일부학자에 의해 세계도시로 분류되어있으나 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은 3%에 불과하다.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쿄는 과거에 형성된 산업 인프라를 주축으로 한 경제적 세계도시의 대열에 끼었을 뿐 실제적으로 미래의 다원화된 세계도시의 이상형이라 볼 수는 없겠다.

<표 2> 주요 도시의 외국인 현황

	런던	파리	도쿄	서울
총인구	751	210	1,250	1,000
외국인(거주)	180	31	36	18
비율	24.8	14.5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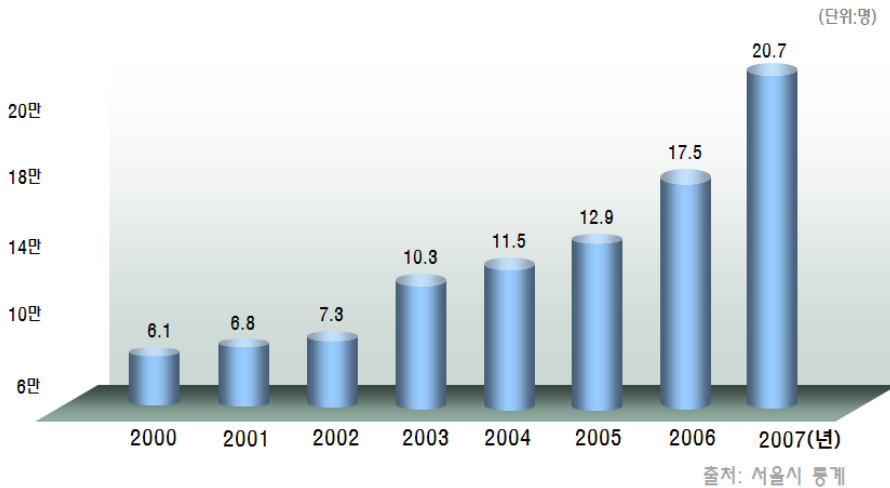
자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정보은행 : 프랑스의 거주 외국인 관리,

[http://en.wikipedia.org/wiki/Greater\\_London](http://en.wikipedia.org/wiki/Greater_London),

[http://www.klafir.or.kr/upFiles/paris/c03/etranger\\_politique.pdf](http://www.klafir.or.kr/upFiles/paris/c03/etranger_politique.pdf)

동경도 안내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tro.tokyo.jp/KOREAN/PROFILE/overview03.htm>

여기에서 다문화 수용측면에서 서울 세계도시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에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20여만 명의 세계 각국 사람들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외국인 인구수와 환경적인 측면은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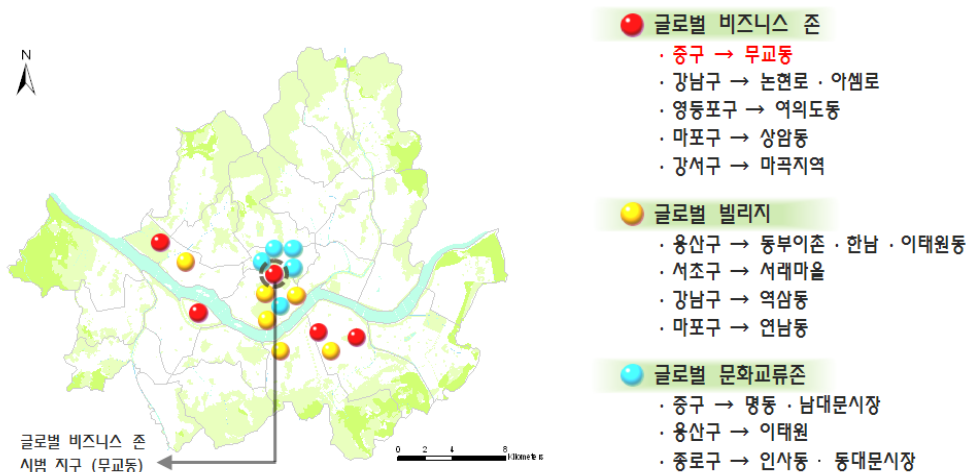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외국인 증가 현황

그러나 서울은 최근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고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어 다문화를 포용하는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994년 95,778명에서 2006년 698,161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외국인의 약 27%가 서울에 살고 있다. 또한 서울에는 프랑스, 일본, 화교, 필리핀, 이슬람, 몽골, 이탈리아, 재중동포(조선족) 마을 등 총9개의 외국인 마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 외국인 마을은 앞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 증가추세와 함께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이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인이 모이는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며, 이들의 문화가 이질적인 것으로 배척되기 보다는 다양한 '모자이크적 서울 문화'의 한 형태로 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도시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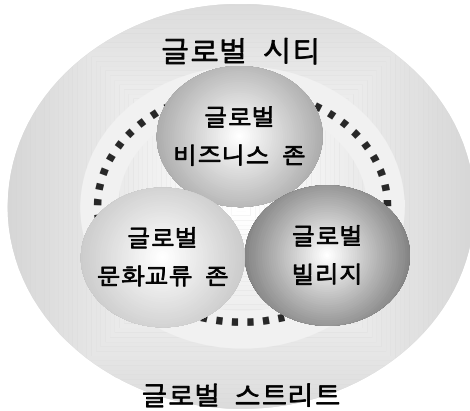
## II. 글로벌 시티, 서울 속의 글로벌 존

결국 세계도시로의 성장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으며 이것을 이끄는 원천은 ‘사람’, 즉 인적요소이다. 세계도시는 지구촌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정보와 자본의 교류 및 네트워크가 강하게 연계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다문화가 형성되는 창조적 공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다문화의 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며 또 다른 문화를 파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서울시의 글로벌 시티 추진 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의 다문화가 존중되는 도시 서울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서울 글로벌 존 지정 현황

현재 서울시는 글로벌 시티 조성 계획을 위한 글로벌 존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외국인 사업자, 거주자 또는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몇 개의 자생력을 지닌 지역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선별된 지역을 주축으로 글로벌 존을 형성하고 이 지역들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서울 전 지역을 글로벌화 하고자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존은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비즈니스 존,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 문화교류 존 등의 형태로 나뉜다.



<그림 3> 글로벌 시티 구조

서울시가 국제기구·초국적 기업·비정부 단체·세계 서비스 등이 집합된 세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자국민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문화적·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의 글로벌 시티 계획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 마련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글로벌 존이 지정되었다.

<표 3> 글로벌 서울의 요소

항목	내용
글로벌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기구·초국적 기업·비정부 단체·세계 서비스 등이 집합된 도시</li> <li>정보·커뮤니케이션·자본이 어우러진 사람중심의 네트워크가 발달된 도시</li> </ul>
글로벌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종교·철학·사상·경제·교육·출신국가 등의 차별없이 평등을 존중하는 시민</li> </ul>
글로벌 비즈니스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국적 기업이 집합된 지역</li> <li>초국적 자본·인적·자원·정보 등의 교류지역</li> </ul>
글로벌 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 출신 외국인 거주지 및 생활환경 형성지역</li> <li>자생적으로 다문화가 형성된 지역</li> </ul>
글로벌 문화교류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교류가 활발한 지역</li> </ul>
글로벌 스트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을 초월한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다문화의 매력이 흐르는 거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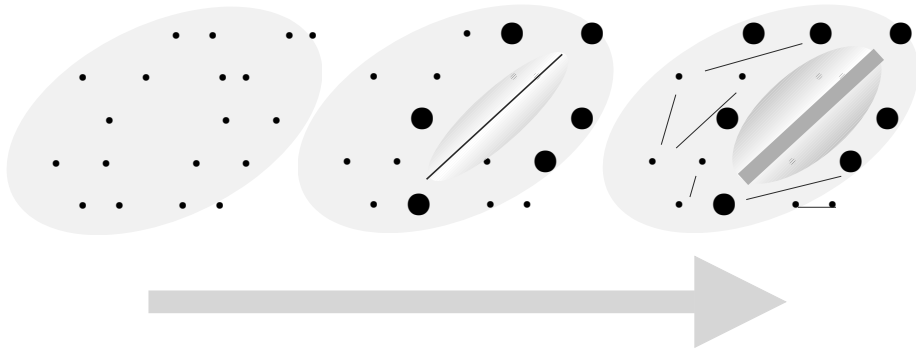
글로벌 비즈니스 존(Global Business Zone)은 서울시내 외국투자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여섯 개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초국적 자본, 인적자원, 정보 등의 교류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는 현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인 마을이 형성된 지역 중 여섯 곳을 선정하여, 다국적 출신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생성·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문화교류 존(Global Exchange Zone)은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교류가 활발한 시내 주요 쇼핑 지역 및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5개 지역을 선별하여 이들 간의 문

화교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트리트(Global Street)는 지정된 글로벌 존 간의 지역 연계성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써, 현재 시범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존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나인 중구 무교동 거리에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III. 글로벌 스트리트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리’ 를 가리키지만 그 ‘거리’ 가 주는 공간적 의미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도시 속 각각의 지점 또는 지역 간 교류가 없다면 이것은 서로 단절된 형태의 개별적 점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간의 상호교류가 생김으로써 ‘점’ 에서 ‘선’ 으로 연결되고 또한 ‘선’ 들의 연결은 도시 속 ‘공간’ 을 형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거리는 지역을 잇는 연결로이자 지역과 지역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도시 전체의 활발한 유동적 교류를 이끄는 원천이 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거리와 지역 연계성

무교동은 과거 조선시대 말부터 성행한 목로주점이 즐비했던 곳으로 1950~60년대 명동 다동과 함께 4대문 안 대표적 환락지역이었다. 탁주와 국밥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며 정겨운 골목문화를 간직해온 무교동은 1970년대 이후 고층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주위 직장인이 찾는 회식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옛 골목 그대로의 정취는 사라졌지만, 네모반

듯한 대형빌딩들의 사각지대 가운데 골목골목 굽이진 무교동 골목길은 현대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남다른 신선함을 안겨준다. 이곳 대부분의 건물은 도심 재개발 이후 지어진 고층 대형 건물에 해당하며 무교동 골목길은 한 지역 안에서 현대와 과거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독특한 공존을 이룬다.



<그림 5>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예시도

글로벌 스트리트로 탈바꿈할 무교동에는 파이낸스 센터 및 프레스 센터 등 외국투자기업들이 위치한 여러 빌딩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계천, 서울광장, 덕수궁, 명동 등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 장소들과 인접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다. 현재 무교동 골목길에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스트리트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지저분한 길은 정비하되 정겨운 골목의 문화는 지키자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골목을 헤치지 않는 최소한의 소방도로 설치 및 거리 정비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외 휴식공간들을 곳곳에 마련해 내국인 및 외국인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거리 문화를 만들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및 공공편의시설 확대가 이루어지며, 친숙한 공간이 되기 위해 각종 간판 및 안내판, 모든 시설물들에 다국적 언어로 표기하고 이들이 서울 글로벌 스트리트의 상징물들이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것이다.

무교동의 글로벌 스트리트는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며, 지구촌 문화 테마가 있는 골목 문화를 지닌 거리로 재탄생되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시내 주요 지역과 연계되어 다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을 글로벌 시티로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 IV. 파리를 통해 본 다문화 세계도시

파리는 일찍이 고풍에 의해 18세기부터 ‘세계도시’라 불려져왔다. 파리가 오늘의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도시 전체가 다문화 모자이크 사회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통한 파리의 세계도시화는 긴 역사를 통해 이 민족을 흡수, 관용, 포용 그리고 배려라는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문화의 흡수와 파생은 곧 프랑스적인 문화의 재 창출로 이어졌고 그 특유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의 시대적 배경이 15세기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물 중 집시 에스메랄다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출신의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프랑스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으로부터 관심을 이끌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 교생의 12% 이상이 외국 유학생으로 구성되어있는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교는 일찍이 중세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 대륙에서 찾아오는 유학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시킴으로써 유학생들이 후일 자국으로 돌아가 전파함으로써 세계 명문대학으로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 및 복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 파리에 총 12개의 단체들이 외국 망명자들뿐만 아니라 기타 이유로 프랑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청소년 보호, 이민가족 복지, 인종차별로부터 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의 안정된 정착과 다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파리는 국제사회로부터 ‘망명의 도

시’ 또는 ‘외국인의 도시’ 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외국인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파리는 인구 210만의 도시에 31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살고 있어 시민 7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여기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두배 이상이 될 것이라 추측된다.

〈표 4〉 프랑스내 외국인 직업분류 현황

(단위: 명)

분류	유럽 외 출신 외국인	프랑스	유럽연맹출신 외국인
최고 경영직	1	12	10
특수 전문직	3	9	8
기술, 교육, 의료보조	1	10	8
일반근로자	59	50	51
노동자	36	19	23
총계	100	100	100

자료출처 : INSEE, 2004

이렇게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직장근로자와 자영업 등으로 나뉘어진다. 외국인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프랑스 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놓고 보았을 때 이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있다는 것은 프랑스사회가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직장활동을 하는 외국인들 이외에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중 소기업이며 노동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자영업 활동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소매업에 치중되어있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정착기에 보다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통해 안정된 정착을 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요구하는 도매업이나 일정한 규모의 호텔 또는 레스토랑으로 활동영역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표 5〉 프랑스내 외국인 자영업 분포

(단위: 명)

분류	창업		
	유럽외 출신 외국인	프랑스인	유럽연맹 출신 외국인
소매	47.5	43	32
도매	32	31	39
호텔, 카페, 레스토랑	16	10	15
간이식품점	3	3	3
부동산	1	13	12
계	100	100	100

자료출처 : 자료출처 : INSEE, 2004

위에서 살펴 본 것 같이 외국인이 프랑스 내 일반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직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오늘날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무역강국으로 발전하고 파리가 세계도시로 사랑을 받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파리는 외국인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느끼고 싶고... 등의 공간이 풍부한 도시이다. 대표적으로 항상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는 주변 유럽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와, 미주, 오세아니아 지역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상젤리제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에서부터 노년층, 연인에서 유모차를 끄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적,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스트리트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6〉 상젤리제 거리

샹젤리제 거리는 1989년 전면적 개조를 통해 과도한 가로시설물 및 보행 장애물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이 용이한 거리로 조성한 후 과거와 달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도로 양쪽에는 마로니에, 플라타너스 등의 울창한 가로수들이 줄지어 있으며, 파리풍의 호텔, 레스토랑, 카페, 극장, 영화관, 상점들이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거리에 설치된 키오스크 및 휴지통, 공중전화박스 등 공공편의시설물들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은 거리의 공간적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기적으로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깨끗한 거리로 유지되고 있다. 샹젤리제 거리의 인기는 거리 주변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도 큰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계획 및 가로시설물 설치 등 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있을 것이다.

파리 시내 소르본느 대학 근처에 위치한 라틴구 (Le Quartier Latin)는 국제적인 문화지구로 꼽히며 오랫동안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음식거리로 유명한 이곳은 프랑스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다. 좁으면서도 이색적인 공간에서 이방인들의 호기심어린 만남을 창출하는 분위기 그 자체로 글로벌 문화를 음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라틴구는 저렴하고 독특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어 세계 음식 거리로 통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변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젊음의 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림 7> 라틴구 거리

## V. 서울, 다문화를 기반으로 세계도시 구현

현재 서울은 글로벌 시티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진정한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전제조건은 하드웨어적 도시 외부환경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 변화일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시설확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전에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들이 모이고 서로 의지하며 서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교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공동협력체를 이루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실시하여 실제 외국인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서울시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영유물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공동의 참여를 이끌고, 토론, 세미나, 문화행사 등을 통한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과 함께 이주해온 외국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교육심리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고를 지닌 서울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과 외국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위원회 등의 창설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에는 시민 50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서 아직 유럽 세계도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서울이 세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에서의 안정된 정착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다양한 인적자원은 앞으로 다문화를 형성하고 서울이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미 외, 서울 속의 세계알리기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서울통계, 서울특별시, 2007
- AGIER Michel et al., Les diaspors dans le monde contemporain, Paris, Ed. Karthala-Msha, 2006
- CLAVAL Paul, La géographie du XXIe siècle, Paris, Harmattan, 2003
- INSEE,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2004
- MA MJUNG Emmanel, La diaspora chinoise géographie d'une migration, paris, Géophys, 2000
- NICOLE Eleb-Harle, Conception et coordination des projets urbain, Dijon-Quetigny, Ed. Recherches, 2000
-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http://en.wikipedia.org/wiki/Greater\\_London](http://en.wikipedia.org/wiki/Greater_London),
- [http://www.klafir.or.kr/upFiles/paris/c03/etranger\\_politique.pdf](http://www.klafir.or.kr/upFiles/paris/c03/etranger_politique.pdf)
- <http://www.metro.tokyo.jp/KOREAN/PROFILE/overview03.htm>